

# 시간과 공간의 관념론적 접근을 통한 초현실주의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rrealistic Design by Approaches to Spatiotemporal Idealism

김정아\* / Kim, Jeong-Ah

## Abstract

This study has importance of that it verifies applicability of a new interpretation of surrealism to spatial design. Transcendental cognitive form of idealism, concept of time and space are premise of reality and surreality is finally condensed to the matter of time and space. Surrealistic techniques are automatic description, double association, montage and etc, and all of them are trials to approach to essence of images expressing unconsciousness through spatiotemporal changes of o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urrealistic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spatial design.

키워드 : 초현실주의, 시간, 공간, 관념론, 디자인

## 1. 서론

인간은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초월적인 세계를 꿈꾼다. 정신적인 이상의 실현은 현실을 극복하거나 넘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이념적 목표였다. 초현실주의 작품들은 몽상적이며 환상적인 이미지와 때로는 유희적이며 아이러니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현실너머의 근원적 문제들을 신비스럽게 암시해준다. 이런 잠재된 의식 속에 투영된 숨겨진 현실의 비밀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의 목표라면, 디자인에서도 이처럼 정신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초현실적인 디자인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떻게 현실의 두터운 담을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칸트의 관념론에서 이야기하는 선형적 인식의 틀인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초현실주의의 현실 넘어서기의 의미를 찾아본다.

모든 현실의 사물과 사건들은 시간과 공간의 기본골격에서 이루어지고 이 두개의 근본적인 전제 없이는 아무런 사물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인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초월적 현실을 다루는 초현실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직접, 간

접적으로 다룬다. 초현실주의의 이해를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론적인 접근을 통해 초현실주의의 이해와 그 기법적 가능성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2. 초현실주의의 개념적 해석

초현실주의는 보다 체계화된 무의식과 환상과 꿈의 세계로서 의식에 속박되지 않은 인간정신의 자유를 추구하였으며, 고정관념 속의 일상적 현실세계에서 인간정신의 해방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미지의 정신세계를 새로운 그림으로 보여 주었으며 꿈, 공상, 죽음 환상 등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적 세계를 드러내 놓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순히 부정, 파괴에만 그치지 않고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의 부정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이전까지 체계화되지 못한 무의식, 꿈, 환각 등을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런 초현실주의의 작품은 구체적인 대상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찌그러트리거나 흘러내리는 형상으로 변형시켜 원래의 형상에 흔적을 남겨 놓아 그 대상의 원래의 모습을 확실하게 암시하지만 그 형태는 전혀 다른 현실 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이런 변형의 작업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결국 객관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적이고 물자체로서의 한 대상은 개인적 인지와 인식과정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개별적으로 각인되고, 심리적으로 내면 속에 감정을 가지고 자리 잡게 된다. 이런 개인화 작업은 결국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외부의 세계가 한 개인의 정신세계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표현하려는 작업이다. 이런 초현실주의의 작품은 몽상적이고 개인적이며, 내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을 표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은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정신세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프로이트(S. Freud, 1856-1939)의 무의식에 대한 이론은 초현실주의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의식은 스스로 외부세계를 지각하거나 자율에 의해 이성과 감성의 상태를 통제하거나 느낄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무의식은 이런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성의 작용과 스스로 사고하거나 통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기절해 있거나 꿈과 같은 상태를 무의식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융의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은 각각 독립된 인식의 주체를 가지며 이를 자아라고 표현한다.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에 상호보완적으로 관계하며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몽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비현실적인 모티브를 끊임없이 찾는 것은 의식저편에 있을 지도 모르는 자유스런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칸트의 관념론에서처럼 시간과 공간이 인식의 선험적 형식이라면 주의라고 하는 사상조차도 그런 형식을 벗어난다는 것이 모순될 것이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인식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가 초현실주의의 화두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표현하고자하는 예술의 세계는 이미 시간과 공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스스로 가지는 또 하나의 딜레마일 것이다.

### 3. 관념론의 초현실주의적 접근

예술의 본질이 감성과 미학에 근거하지만 초현실이라는 개념은 이미 상당부분 관념론적 철학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무의식은 이미 의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이런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표상해야 하는 작업은 이미 변증법적 논리를 가지게 된다. 초현실주의라는 의미는 현실을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든지, 하나의 구조로, 또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라는 관념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관념론은 실존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과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 그리고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들로 분류되지만 초현실주의의 이론적 배경은 초월적인 관념론에 근접해 있으며 다양한 해석의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논리와 관념의 질서와 감성과 구체성의 질서

는 한편으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성을 자기의 것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예술은 비록 철학과는 상이한 지적 결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철학을 포용할 수 있는 폭넓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초현실주의는 결국 이런 상반되는 요소를 변증법적 방법으로 일체화 시켜 전혀 다른 예술적인 진화를 이루어 냈다는 데 예술사적 의미를 가진다.

물론 예술의 다양한 이념들이 얼마나 부족한 철학적 논리를 가지는지는 이미 여러 가지로 밝혀진 바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런 비판적인 문제 제기나 개념의 규정과 같은 의의를 가지기보다는 좀더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실내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 3.1. 초월적 관념론

칸트(I. Kant, 1724~1804)의 관념론에서 경험에 대한 초월적(transzendent)인 것의 의미는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또는 경험으로 향하여져 있는 성질을 전혀 갖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개념에서는 경험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 즉 경험 영역의 반기 내지 경험 한계의 초월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초월적인 것은 언제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어떤 것이며, 경험의 한계를 초탈함에 의해서만 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초월적인 것은 선험적(a priori)과 관계되어 있으며, 대상의 선험적 인식과 관계됨을 뜻한다. 선험적인 것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 경험의 가능성 조건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경험에 대한 관계를 항상 소유하는 반면에, 초월적이라는 것에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 경험을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의 한계를 초탈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경험의 감각적 영역은 선험적인 것을 통해서는 논리적, 인식론적으로 정초되지만, 초월적인 것에 의해서는 이러한 경험의 감각적 영역이 부정되고 초탈된다.

초월적이라는 것은 비감각적인 것 내지 초감각적인 것에 관련된다. 이러한 해명은 선험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결함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초월적인 것에 의한 감각적인 것의 거부를 명확히 해준다. 초월적인 것은 우리들에게 초감각적 영역을 열어 보여 줄 것이며, 이것은 신, 불멸성, 자유와 같은 초감각적 존재의 대상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선험적이라는 것이 관념론적이라면 초월적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속성의 것으로 초감각적 존재의 대상을 표현한다.<sup>1)</sup>

초현실주의가 초월적인 의미가 아니며 선험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할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로 무의식이라는 주제가 초월적인지 아니면 선험적인지는 더 많은 연구가 요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현실주의에서 다루는 것이

1)A. Varga von Kibed, 순수이성비판의 기초개념, 이신철 옮김, 한울 아카데미, 1994.

신이나 불멸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본다. 오히려 시간이나 공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선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초현실주의는 현실의 선형적인 문제에 더 많이 접근해 있다.

칸트의 초월적 선형철학은 크게 감성론과 오성론, 그리고 변증론으로 구별된다. 감성론은 직관의 능력인 감성의 선형적 기여를 다루고, 분석론은 개념의 능력인 오성의 선형적 기여를 다루며 변증론은 인식이 개념과 직관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특히 선형적 감성론은 순수 감각과 지각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선형적 감성론은 우선 오성으로부터 감성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경험적 직관으로부터 감각에 속하는 모든 것을 분리시킨다. 이런 분리 작업은 초현실주의의 현실적인 구속으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다. 이런 분리작업 후에 남는 순수직관과 어떤 틀, 즉 형식만이 남게 된다. 이런 선형적 인식의 원리로서 감성적 직관은 두 가지 순수 형식인 공간과 시간만이 남게 된다.<sup>2)</sup> 이 두가지 순수한 형식은 개념이 아니라 직관이라는 원리이다. 시간과 공간은 사물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수한 직관의 형식으로 사물보다 논리적으로 앞서 있어서 사물이 없을 때라도 공간과 시간은 존재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모든 현상과 인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인 사물의 존재를 초월하여 남아 있는 감성의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칸트의 관념론은 많은 부분 초현실주의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가진다.

### 3.2. 관념론적 공간론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의 근저에 놓여 있는 필연적인 표상으로 선천적이다. 우리는 공간 안에 대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공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간은 현상에 의존하는 규정이나, 외적 현상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보여진다. 즉 공간은 필연적으로 외적 현상의 근저에 놓여 있는 선천적 표상이다.<sup>3)</sup>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무”의 세계라면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는 공간 속에 대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이 없다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즉, 공간적인 것을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실

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이지만 누구든지 공간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간은 일반적인 사물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존재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공간은 필연적이고, 또한 선천적인 표상이다.

공간은 생득적이거나 경험에서 알게 된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각들이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관계하기 위해서는, 즉 인지주체의 감각들이 각 대상을 분리되고 병존해 있는 것으로 표상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공간의 표상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표상은 외적 현상과의 관계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외적 경험 자신이 위에서 말한 공간이라는 표상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각은 공간의 전제에서 성립되는 것이고 어떠한 초월적인 현상들조차도 그것이 감각을 통해서 표상되어야 한다면 공간이라는 형식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초현실주의에서의 초월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이런 공간을 초월한다든지, 혹은 공간이 제외된 세계를 상상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물들을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새롭게 연관시켜보고 공간의 순수한 존재양식을 제시하여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3. 관념론적 시간론

시간은 모든 현상 일반의 선천적인 형식의 조건이다.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의 순수 형식이므로 선천적 조건은 외적 현상에만 제한된다. 이와 반대로 모든 표상은 그것이 외적 사물을 대상으로 가지든 가지지 않든 간에 그 자신이 심성의 규정으로서 내적 상태에 속하고, 이 내적 상태는 내적 직관의 형식적 조건에 속한다. 따라서 내적 상태는 시간에 속하므로 시간은 모든 현상 일반의 선천적 조건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내적 현상의 직접적인 조건이 되므로 간접적으로는 외적 현상의 조건이기도 하다. 모든 외적 현상은 공간 속에 있고, 또 공간의 관계에 따라 선천적으로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감의 원리로부터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현상 일반, 즉 감각의 모든 대상이 시간 속에 있고, 필연적으로 시간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직관하는 우리의 방식과 이 내적 직관을 매개로 하는 표상력의 모든 외적 직관을 파악하려는 우리의 방식을 도외시키고, 즉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다룬다면 시간은 없는 것이다. 시간은 다만 현상에 대해서만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단지 우리의 직관의 주관적 조건이며, 주관을 떠나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장은 언제나 우리의 감각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대상에 관해 시간의 경험적 실재성, 즉 객관적 타당성을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의 직관은 언제나 감성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조건 아래 속하지 않는 대상은 경험 안에서는 결코 우리

2)Immanuel Kant,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7, p.35

칸트의 관념론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인식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체계적 접근으로 인식의 조건과 능력에 대한 다양한 범주들을 다루며 특히 인식의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형적 틀을 논한다.

3)순수이성비판의 기초개념, A.V. 본 키벳, 이신철 역, 1994, p.40

칸트에 있어 표상과 물자체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대별되는 두개의 상이 한 개념으로서 주체와 대상의 이원론적 접근으로 이해 된다. 순수이성비판론에서는 이 인식에 대체를 다루게 되며 이성과 감성에 대한 형식의 문제로서 공간과 시간의 문제를 대두시킨다.

에게 주어질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시간의 절대적 실재성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다. 즉 시간은 절대적으로 조건이나 속성으로서 사물에 속하는 것을 거부한다.<sup>4)</sup>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모든 직관은 현상의 표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리가 직관하는 사물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직관되는 것이 아니요, 사물의 관계 그 자체도 우리에게 현상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주관이나 감관 일반의 주관적 성질만을 제거한다면, 공간과 시간에 내재되어 있는 객관들의 모든 성질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 그 자체까지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개념도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자체라기 보다는 이런 대상들을 감각하기 위한 내적인 선천적 조건이다. 공간이 외적이라면 시간은 내적이다. 즉 시간은 일련의 직관적인 사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형식이다. 복합적인 감각의 표상들이 다양함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속성을 가졌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일련의 사건적 표상들의 연결고리는 전과 후를 가진다. 이 전과 후의 개념이 시간의 출발점이 된다. 표상들은 시간 속에서 일련의 사건으로 통합되고 연결된다. 이런 직관의 파편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시간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은 변화와 관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변화와 관계는 사물의 내재된 현상인 반면 시간은 이런 현상을 표상하여 인지하고 인식하기 위한 내적인 조건들이다. 시계에 의해서 시간은 객관화되고 조작되어질 뿐이지만 실제로 시간은 아무런 절대적 척도를 가지지 않는다. 모든 변화하는 주체는 내재된 변화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변화는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감각되어진다. 그래서 시간은 어떠한 절대적인 속성이나 고유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선험적으로 주어진 감각의 전제일 뿐이다. 현실이 변화하고 이 현실의 현상들이 서로 관계한다면 시간의 틀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떠한 초현실적인 사건들이나 감성 대상들도 그것이 인지될 때는 이런 시간의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공간개념과 초현실주의적 작품들도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시간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제기에 의미를 가질 뿐이다. 시간의 정지나 시간의 역류나 시간의 중첩과 같은 초현실주의적인 시도들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적인 관계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Immanuel Kant, Op. Cit, 1787, p.50

인식능력은 그 공간과 시간의 기능들 속에서 자신의 본질법칙을 표현한다. 이런 직관의 원리들인 공간과 시간이 직관의 현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이러한 형식들이 없다면 사물들은 감성적 의식 속에 현상할 수 없다.

#### 4. 초현실주의적 표현기법과 시간과 공간의 개념

초현실주의는 여러 장르에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그들이 추구하려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였다. 실제로 초현실주의는 표면적으로는 몽상적인 무의식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 시간과 공간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지나지 않는다.

초현실주의에서 추상성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세계에서 지각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형상으로 표현된다. 이런 형상은 직관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특징이 있다. 직관이란 일반적으로 판단, 추리, 개념화 등의 사유작용을 덧붙이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감각 기관과 인지작용을 통해 파악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과정적으로는 일거에 비약적이고 순간적으로 진행하고, 기능으로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을 배제하고, 내용으로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결론으로 요약된다는 점이다.<sup>5)</sup>

엄격하고 단계적인 논리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초현실주의는 불규칙적이고 임의적인 감성적인 접근방법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즉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논리와 필연을 전제로 진행되지 않고 우연적이며 우발적으로 즉 합목적적이지 않은, 그래서 의도와 개념을 파악하기 힘든 유희적인 성격을 가진다.

초현실의 세계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이들은 무의식의 세계에 주목한다. 예술적인 가치나 인간 감성에 밀접한 이런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어 일반적으로 개념화시키거나 형상화하는 작업이 일반적인 현실주의 작품들의 성향이라면 초현실주의 작품의 창작과정은 무의식의 세계를 그대로 무의식의 세계에 남겨 둔 채 다양한 수단으로 형상화한다. 그들이 찾은 방법으로는 자동기술법이나 오브제의 장소 이동이나 시간적 병치와 같은 생소하게 만들기 등의 기법들이 있다.

##### 4.1. 자동기술법 (Automatism) : 공간 형식과 시간성의 무시

초현실주의의 마술적 기법의 비결이라고 불리는 자동기술법은 지극히 우발적인 사건으로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인 우연적 형상들로 구성된다. 즉 무의식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무런 규칙이나 의도 없이 받아쓰는 기법이다. 결과적으로는 억제된 욕망들을 의식의 표피로 떠오르게 하는 작업이다.



<그림 1> 앙드레 마송, 기사, 1927

미술에서 자동기술은 마송(A. Masson. 1896~1987), 달리

5) 하가진, 현대 실내공간 표현에 내재된 초현실주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석논,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00, p.17

(S.Dali. 1904-1989), 에른스트(M. Ernst. 1871-1976), 미로(J. Miro. 1893-1983) 등에 의해 대생과 회화의 새로운 기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들은 감동에 따라 손끝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어 작품이 스스로 완성되어 지도록 하였다. 물론 그 형상들은 비현실적이고 독창적이다. 이런 우연이 초현실적일 수 있는지의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지만 계획되지 않은 무작위적인 자동묘사의 결과물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전달한다. 어떤 자연의 현실적인 형상의 묘사도 아니고 무언가를 암시하는 상징적 의미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전혀 생소한 형태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생소함은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본질적으로 생소한 형태의 모든 것이 초현실적일 수는 없지만 초현실적인 것은 생소한 형태일 수 밖에 없다.

우연과 생소함이 초현실적인 것의 본성일 수는 없으며, 단지 초현실적인 것의 표상양식일 수는 있다. 아마도 이런 우연적인 형상은 원근법을 통한 공간적 깊이가 묘사 될 수는 없으며, 일련의 시간적인 연속성조차도 우발적일 뿐이지 필연적인 어떠한 관계성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브르통(A. Breton, 1896-1966)의 말처럼 “초현실주의 속에 빠진 사람은 열광적으로 자신의 유년시절의 가장 멋진 부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 진정한 삶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유년시절일지도 모른다”<sup>6)</sup> 자동묘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적인 현상들이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절대적인 정지된 시간 속에 현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내면적 추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건축에서는 해체주의적 성향과 그 작업과정이 이런 자동기술법에 가장 근접해 있다. 정형화 되지 않은 형상들은 어떤 논리와 필연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우연적인 형태들의 자유로운 실험들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자하 하디드(J. Hadid)는 비물질적 요소를 도입하여 모서리로 뻗어나가는 듯한 선과 평면들의 자유스러운 구성과 불규칙적인 형상과 색채, 재료사용의 추상 디자인에 의한 비정형성이 문순 레스토랑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림 2> 자하 하디드 문순 레스토랑, 1990

6) 로베르 르네, 초현실주의1, 김정란 옮김, 20세기 미술운동총서 11, 1990, p.18

쿵 힘멜브라우(C. Himmelblau)의 법률사무소 옥상증축은 무의식적이고 우발적인 디자인 과정을 추구하며 합리성이나 계획된 이성적인 두뇌의 수단보다는 손에 의한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창작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상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되지 않은 자동적인 드로잉과 모델작업을 통해 전혀 자연적이지 않으며 일상적이지 않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는 즉, 기존의 구조와 가치를 해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에서 일탈하는 독창적인 형상을 가지게 된다. 공간적인 감각형식이 일탈하는 과정은 투시도적인 일상의 인지과정의 해체로 해석할 수가 있다. 중력방향에 대항하여 건축된 일반적 구조물에서 보여지는 명료한 수직, 수평의 투시선들은 규칙적인 요소들의 배치와 기하학적인 형태를 통해 익숙한 모습으로 공간이 인지되는 반면에, 우연적인 곡선과 사선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은 그 깊이와 형태에 있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단지 거리감에 의해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표면의 질감과 명암처리에 의해 공간의 깊이와 형태가 왜곡되어 전혀 다른 현실감을 가지게 된다.



<그림 3> 쿵 힘멜브라우, 법률사무소 옥상증축 내부전경, 1989

## 4.2. 이중연상표현(Visual pun):공간적인 전이와 시간적 뒤틀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와 의미를 지닌 것들을 함께 전이시키거나 병치함으로서 전혀 다른 대상을 창출하는 기법으로 하나의 대상에 이중적인 형상을 표현하거나 이중적인 연상이 가능한 다의적인 형상을 표현하여 시간의 역류나 공간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해 시각적인 유희를 유발하게 한다. 이는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동떨어진 마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곳과 저곳을 병치시켜 시공을 초월하는 이미지를 제시한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이질감은 우선은 전혀 생소하며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대상들이 얽히면서 시간과 공간은 그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존재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르네 마그리트(R. Magritte, 1898 ~1967)의 부인의 내실의 철학이라는 작품에서처럼 발가락을 가진 구두나 유방을 가진 옷과 같은 것은 서로 안과 밖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전이를 통해

전혀 다른 의미를 제시한다. 구두가 밖이고, 그 안에는 발가락이 있다면 안이 밖으로 돌출 되어 공간적으로 두 개의 사물이 병치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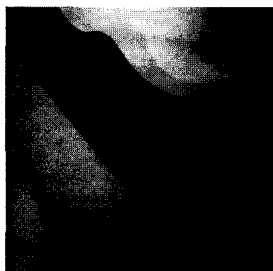
건축에서도 사이트 그룹(Site)의 Parking Lot Showroom 에서도 주차장의 물결치는 지붕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간적 의미를 병치시킨다. 또한, 모로소(Moroso)에서 디자인된 조각적이면서 유동적인 소파에서 느껴지는 이미

지는 쾌적함과 여성적인 에로틱함의 이중적 연상효과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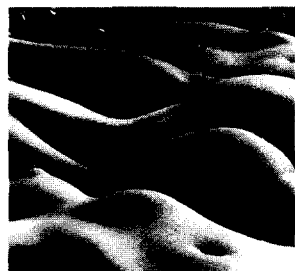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시각적 유희는 두 가지 다른 의미의 병합으로부터 성립한다. 즉, 서로 다른 의미와 형태를 지닌 것을 함께 병합함으로써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병치와 조작의 효과를 가지게 되며 전혀 다른 새로운 대상을 창출해 낸다.



<그림 4> 르네 마그리트, 내실의 철학, 1947



<그림 5> 모로소 소파, 2000



<그림 6> 퀴시앙 클레르그, 1993

### 4.3. 콜라주(Collage), 아상블라주(Assemblage):이질적인 공간과 시간의 병립

콜라주, 아상블라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조리한 충동이나 아이러니컬한 연쇄반응을 노리는 기법이다. 피카소나 브라크에게는 단순한 미적 수단에 불과하지만 다다이즘에서는 붙여지는 물체 자체에 의미를 두기 시작한다. 에른스트(M. Ernst)의 “백가지 모습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통해 초현실주의적인 콜라주를 확립했다.



<그림 7> 막스 에른스트, 백가지 모습의 여인 1929

초현실주의의 콜라주는 기성품에 손질을 가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물체끼리 조합시킴으로서 별개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비유적, 연상적 상징적인 효과를 노렸다. 즉 서로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와 오브제의 위치를 변경시킴으로서 전혀 다른 조합 즉, 조작된 세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 세계는 가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이미지이다. 이런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재배치는 현실적이지 않은 연합, 즉 이질적 시공 속에서의 병립을 의미하고 각 요소들간에 부자연스러운 관계이며 분절된 세계를 표현한다. 콜라주가 2차원적인 표현방법이라면 아상블라주는 3차원적인 표현 방법이다. 즉 폐품이나 일용품물 비롯하여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으로 주로 조각이나 3차원적인 입체작품의 형태를 조형하는 미술상의 방법을 말한다. 이 콜라주 기법이 초현실주의적이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의 집적이 가능하고 자연스럽지 않아야 하며 이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모순적으로 방치되어야 한다.

이중연상법이 하나의 대상에 2개의 모순적인 내용을 대비시킨다면 콜라주는 여러 개의 실물을 집적시키는 차이를 의미한다. 결국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어도 시간과 공간적으로 대립되는 요소의 병치나 대립되는 방법으로 그 존재형식들을 병치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끄 데리다의 상호 텍스트성 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즉, 한 인용된 텍스트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의미가 변질되며 끊임없는 인용과 반복을 통하여 인용되는 텍스트의 의미는 산중 된다는 것이다. 뒤샹의 “자전거 바퀴”라는 아상블라주 작품에서처럼 정적인 의자 위에 접합된 동적인 자전거바퀴는 대립되는 두 개의 요소를 집적시킴으로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

프랑크 게리(F. Gehry)는 회화에서 콜라주적 기법을 적용한 건축가로 물체의 조형성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형상을 추구한다. 그는 주위의 일상적이고 이질적인 재료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들을 극적으로 병치시켜 일상적인 재료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부여함으로 혁명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극적인 병치는 지역적이며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무시함으로서 공간과 시간성의 상실을 유도한다.

자동기술법이 한 표현 대상을 시간과 공간이 제외된 순수한



<그림 8> 프랑크 게리, 게리하우스, 1978

물자체로서 표상되기를 시도하는 반면에, 이중연상법이나 풀라주와 아상블라주 기법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 대립적인 두 개의 대상을 동시에 병립시켜 오히려 그 존재를 표면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즉 현실이라는 일반적 제약을 벗김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 초월적인 감성을 표출해낸다.

## 5. 초현실주의적 디자인개념과 시간과 공간

일반적으로 형상적 디자인의 작업과정에서는 그 초기에 개념이 설정되어 전체적인 성격과 내용의 이정표를 마련한다. 자연주의적 개념이나 유기주의적 개념, 기계 미학적 개념들이 이러한 전체의 줄거리일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개념은 창작과정과 그 결과물이 주는 전달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경우 성공적인 개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디자인의 주제로서 이해될 수도 있고 동시에 디자인의 성격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런 주제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기법적인 다양함들이 적용된다. 디자인을 위해 주어진 조건들과 주변의 환경들을 고려하여 디자인에 있어서의 다양한 요소들은 스스로 성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런 결정과정에서도 상위의 개념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상호 관계를 가지며 전체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개념에 합일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틀에서도 즉 전체와 부분의 조합적인 구조에서도 전체 개념과 합일하여야 한다. 좀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디자인에서는 이런 각 요소들도 스스로 독립된 구조를 가지며, 이런 구조들도 각각의 역할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하위 개념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전체의 개념들의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하부개념들을 내포하게 된다. 그래서 착안적 개념과 발전적 개념, 그리고 결과적인 개념의 과정적 단계를 거쳐 개념은 디자인 과정에서 진화하게 된다. 이런 진화는 그 순간순간 하나의 결과치를 가지게 되며 발전되거나 대안되고, 선택되어 하나의 완성물이 생겨나게 된다. 이 완성물은 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디자인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초현실주의 디자인에서도 이런 개념이 표현되며 달리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현실의 몽상적 이해나 시간의 개별화, 사물의 주관화 등 다양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상징하게 된다.

초현실주의의 개념이 다른 현실주의적 작품과 비교되는 것은 일상적인 대상들이 많은 부분 재해석되거나 개별화되어 개인적인 주관의 틀 속에서 자유롭게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분히 주관적이며 그 개념들도 개인적인 우연성 속에 존재하게 된다. 시간이 뒤틀리거나 공간이 역류하는, 그리고 오브제들의 자유스런 형태의 변이들의 기법적 표현들은 일정한 대상을 유추, 상징하거나 또는 연상하게 된다.

공간이나 시간이 초현실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본질적 형식을 무시하거나 그 근원적인 속성을 제거하는 방법과 반면에 좀더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 속성을 변화시켜 초현실적인 상황들을 연출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개념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 5.1. 공간

#### (1) 공간의 선형적 형식에 대한 조작이나 무시

-무공간적 표현, 공간의 인지형식의 무시 : 원근법이 무시된 3차원의 세계, 무깊이의 세계, 무중력의 세계와 같은 일상적인 공간의 지각과 전혀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어 공간이 없는 것처럼 감각되도록 하는 방법

-공간적인 위치의 변경 ; 전후, 좌우, 앞뒤, 안팎이 바뀌어 일반적인 위치에서 탈선하여 공간적인 전이를 통해 이질감의 표현, 엉켜진 상태

#### (2) 공간 속에 담길 내용의 변형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대상들이 놓여진 공간 : 추상적인, 인공적인, 새로운 형태로서 자연의 성장 법칙이나 자연적이지 않은 형상들로서 오히려 자연의 현상들에 반하는 역 자연적인 구성 원리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형상으로 채워진 공간

-현실적인 대상들의 변형이나 새로운 조합 : 사람이나 일정한 대상의 전체를 변형시키거나 부분적으로 변형시켜 전혀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몽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오브제를 만들고 이를 둘러싼 공간은 이질적 형식으로 인식되고 이런 전반적인 의도들은 개념적으로 무엇인가를 유추하거나, 은유하거나, 상징하게 만든다.

-현실적인 대상들이 과장되거나 축소된 크기로 표현

: 비교되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자연스럽거나 일상적인 규모보다 과장되게 축소되거나 확대된 모습으로 서로가 상호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 5.2. 시간

#### (1) 무시간적인 표현

-시간의 인지형식의 무시 : 무변화와 무연속적인 사건들의 나열로 인해 시간적인 속성이 배제된, 그래서 시간을 인지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내적인 성질을 표현한다.

#### (2) 시간적인 내용물의 변형

-시퀀스의 변형: 시간의 계열로 일련의 사건들을 그 사건의 연속 속에서 셀 수 있으며, 즉 계열화 시킬 수 있으며 이런 일련의 수량적인 순서들을 바꾸거나, 중첩시키거나, 역전시키는 방법들이 가능하다.

-관계의 변형: 이런 관계는 인과성과 관계있으며 다양한 결과의 계기가 규칙에 종속될 때에만 주어진다. "아침이 되어야 해

가 뜬다” 라는 시간의 순서가 무시되어 각 단계별의 관계가 변형되는 것이다.

-이질적인 시간표상의 대비적 병립 :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 특정한 선천적 인식형식으로서의 시간이 이와 반대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시간의 표상과 대비시켜 현실 밖의 우연적 암시를 유추한다.

<표 1> 초현실주의적 표현기법과 시간과 공간

형식		자동 기술법	이중 연상표현	플라쥬
기법				
공간	공간의 선형적 형식에 대한 조직이나 무시	무공간적인 표현	공간적인 위치의 변경	
	공간 속에 담길 내용의 변형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대상들이 놓여진 공간	현실적인 대상들의 변형	현실적인 대상들의 새로운 조합. 현실적인 대상들이 과장되거나 축소된 크기로 표현
시간	무시간적인 표현	시간인지형식의 무시		
	시간적인 내용물의 변형	시퀀서의 변형	관계의 변형	이질적인 시간 표상의 병

7. 이철재, Geometry in Geometry, 건축 인 Poar, 2003.6
8. 하가진, 현대 실내공간에 내재된 초현실주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2000
9. A. Varga von Kibed, Erklarung der Grundbegriffe von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94
10.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유효창, 서정연 공역, 도서출판 시공, 2002
11. Immanuel Kant,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7
12. Immanuel Kant, 순수이성 비판 서문, 김석수 역, 책세상, 2002
13. Jose pierre. Rene Passeron, Surrealism, 박순철·김혜신 역, 열화당, 1994
14. Rem Koolhaas, Retroactive Manifesto for Manhattan, 김원갑 역, 태림출판사, 1999
15. Rem Koolhaas, 광기의 뉴욕, 김원갑 편저, 세진사, 2001
16. Robert Radford, Dali, 김남주 역, 한길아트, 2001
17. Suzi Gablik, Rene Magritte, 천수원 역, 시공사, 2000
18. T.E 윌커슨 지음, 순수이성비판, 배학수 옮김, 서광사, 1987

<접수 : 2003. 7. 7>

## 6. 결론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의 선형적 인식형식인 공간과 시간에 의한 초현실주의의 이해는 공간을 인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전체적 형식으로 이해함으로써 현실적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론적 접근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개념에 의한 구체적인 작품들은 한정적이지만 1)공간의 선형적 형식에 대한 조직이나 무시 2) 공간 속에 담길 내용의 변형 3) 무시간적인 표현 4) 시간적인 내용의 변형과 같은 기법적인 방법들은 아직도 새롭게 적용 가능한 영역들을 남겨 놓았다.

이런 관념론적 해석은 분명히 무의식이나 몽상, 정신착란증적인 해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초현실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오히려 방법론적인 가능성을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응용의 문제보다 중요하게 다룬 것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초현실주의의 이해를 명확하게 하며, 그에 대한 표현형식의 범주를 확장하는가에 있다.

## 참고문헌

1. 김영건, 철학과 문학비평, 그 비판적 대화, 책세상, 2000.
2. 랄프 루드비히, 순수이성비판, 박중목 번역, 이학사, 1995
3. 로베르 르벨, 초현실주의 1,2, 김정란 역, 열화당, 1990
4. 신현숙, Le surrealisme, 동아출판사, 1992
5. 윤경환, 현대건축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2000
6. 이신철 독. 순수이성비판의 기초개념. 한울아카데미, 1994